

대구대학교 가정호스피스

▶ 호수공원 आय회



8월 11일 호수공원으로 환자 7명과 봉사자들이 함께 산책하고 전망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우수 봉사자상 수상 및 사별가족 만남의 날 행사

9월 17일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에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타의 모범이 되어 우수자원봉사자상을 강혜자(아네스)봉사자가 수상하였다. 11월 10일 사별가족을 모시고 추모식 및 사별가족 모임을 가졌다. 추모미사에서 꽃과 초를 봉헌한 후 연도를 드렸으며 오카리나 작은 음악회도 열어 위안의 시간을 가졌다.



부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심화교육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소양 증진을 위한 심화교육으로 원목실장이신 한종민(아누아리오)신부님의 영적 나눔 강의가 4차례(5월, 7월, 9월, 11월)이었다. 성화와 성서말씀을 묵상,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개인의 성찰과 섬기는 이의 자세를 재인식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의미 있는 돌봄을 실천하도록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 호스피스 우수자원봉사자상 수상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2014년 9월 17일)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모범자원봉사자상은 본원 박기순(아네스)님, 국립암센터(2014년 10월 8일)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우수자원봉사장은 정미경(아폴로니아), 박수정(이레네)님께서 수상하였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한 활동들을 하신 중에도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보람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 기타 소식

① 제5회 사진전(10월 13일~30일): 부산성모병원 1층 로비와 10층 완화의료센터에 호스피스관련 34점의 사진을 전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등의 활동을 하였다.

② 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인식 및 삶의 의미 조사 (10월 15일~ 10월 24일): 대상은 내원 환자 및 가족,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기념품을 드리며 조사하였는데 본원 IRB를 통과한 내용이었다.

③ 2014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10월 28일): 2014년 사별가족의 만남의 날에 45명의 가족이 참석하여 팀원, 자원봉사자들 외 관계자 100여분이 추모미사와 점심식사, 공연, 웃음운동, 편지쓰기, 풍선 날리기 등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 돌아가신 분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성모병원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이 진행되었다. 지역사회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호스피스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제공되었다. 이번 교육은 약 130명의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단순한 호스피스 교육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9월 12일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으로 시작한지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마련하였다. 기념행사에는 20년간의 사별가족과 환자의 사진전, 기념미사, 다과, 기념품 증정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sr.라정란 회장과 사별가족, 교직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기타 소식

9월 24일 호스피스팀의 팀워크와 신앙을 돈독히 하고자 어농성지에 방문하였다. 10월 8일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사진전시, 환자 작품 전시, 축하 공연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11월 7일 위령의 달을 맞이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이 초대하여 추모미사를 드렸으며 초와꽃 봉헌, 동영상 감상, 가족들의 편지, 간호사의 편지를 통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기쁨을 제공하였다.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낮 호스피스

7월 11일 낮 호스피스를 실시하였다. 투병생활에 지쳐 있는 환자와 가족을 센터에 모셔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노래도 함께 부르고 마음을 활짝 여는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센터뜨락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해바라기(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미사

11월 6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낸 유가족들을 모시고 센터에서 사별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령성월을 맞아 환자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시고 선승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 하였다.

▶▶ 직원 및 자원봉사자 성지순례

아가일이 무르익어 아름다운 계절의 한 중턱인 10월 29일 센터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성지순례길에 나섰다. 서소문 순교성지와 절두산 순교성지를 방문하여 순교자들의 숭고한 열과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성빈센트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행사



2014년 완화의료 주간 행사로 10월 6일(월) 병원 1층 대합실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 리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 및 무료찾집을 시행 하였고 10월 23일(목) '의료인을 위한 완화의료 교육'이라는 주제로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 2014년 화성 심포지엄

12월 5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의료진이 모여 논문과 미국 연수기 발표를 하였으며, 각 병원 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보 공유 및 의견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 기타소식

9월 17일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전국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과 2014년 심화교육' 행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최병철(십자가의 요한) 형제가 자원봉사자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10월 24일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피정이 몬티 피정의 집에서 있었다. '경청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착한목자수녀회 이스텔라수녀님과 김플라치다수녀님의 강의 있었으며 역할극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치유 시간이 되었다. 11월 7일(금) 성빈센트 드 블 자비의 수녀회 강당에서 제 13회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제를 열었다. 위령성월을 맞이해 사별가족을 초대해 임종하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였고 미사, 촛불봉헌, 미술요법 강사의 상실적응작업 및 발표, 마음 풀이 등의 프로그램진행과 고인을 향한 마음을 풍선에 담아 하늘에 날리며 그동안의 슬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성가를로병원

▶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연합교육



7월 29일 광주 기독교병원에서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연합교육을 영적돌봄, 사례발표, 음악요법등의 강의를 했으며 사례발표는 5개 기관에서 준비했다. 우리병원에서는 봉사한지 이제 막 한 달되어 가는 정미화 카타리나 자매님의 진솔한 발표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발표 후 잡지사에서 취재를 했으며 각 기관에서 체험한 나눔이 다채롭고 감동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 캠페인

10월 8일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혈압과 혈당 체크와 더불어 안내 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설명했다.



▶ 위령성월 호스피스 병동미사 및 사별가족모임

11월 11일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분향하고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미사를 봉헌했다.

익산성모병원

▶ 제14회 전국 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공로상 수상
9월17일 제14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봉사자 오정자(아베스)님이 공로상을 받았다. 2005년 10월 익산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후 익산성모호스피스에 총무직을 수행하였고 웃음치료 자원봉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에게 웃음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다

▶ 자원봉사자 피정

11월14일 성모병원 호스피스,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힐링 피정이 있었다. 익산시



내 영등동 성당에서 57명이 모여 김 반숙수녀의 지도하에 피정을 하였는데 시작미사를 박 창신 사제가 집전해 주시고 강의는 예수수도회 신 귀남수녀의 강의와 나눔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삶을 통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자신들이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익산성모호스피스 사별가족 미사, 모임

11월26일 오후1시에 사별가족 미사와 모임이 요양원 홀에서 있었다. 13가족을 모시고 1부 미사, 2부 전례(성가, 복음, 시 낭송, 연도) 3부 다과시간으로 사별 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봉사자들과 이숙희수녀, 장영선 병원장수녀가 함께 사별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파티마병원

▶ 제2회 창원파티마병원 심포지엄 개최

9월 13일(토) 병원 강당에서 제2회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의 임상협진, 호스피스·완화의료 팀 협진을 주제로 의료기관간 정보를 공유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10월 14일(월) 병원 1층 로비에서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주간을 맞아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암환자의 통증은 관리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OX퀴즈, 사진전, 거리홍보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 2014년 사별가족 모임

11월 29일(토) 위령을 달음 맞이하여 2014년 사별가족모임을 실시하였다. 오전 11



시 사별가족미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 성 요한 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보건복지부 수상 및 행사 참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을 맞이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관련 종사자 등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고자 하는 행사에서 지난 17년간 환자와 보호자에게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따뜻한 미소와 손길로 삶의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해준 본원 도선향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말기 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에 참여하여 본원에서 활동하신 5명의 우수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시간을 통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캠페인



본원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을 기념하여 국민들에게 캠페인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홍보 및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목적으

로 10. 9(수)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중심사 입구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사별가족 모임

11월 26일 소중하고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랑으로 만났던 이들이 그 위지는 계절! 사별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그리움을, 지금의 시간함께 나누며 따뜻함과 웃음



행복한 마음을 채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제14회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

9월17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14회 전국호스피스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가 이소우,노유자,김혜자,박재순 역대 전임 회장님들과 전국의 본협회 산하기관장과 자원봉사자 등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서강대 종교학과 최수빈교수님이 고통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열띤 강의로 해석해주셨다. 전국 각 기관에서 추천된 8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공로상을 받아 그간의 노고를 동료와 가족, 그리고 그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나누었으며 장광계 협회지도신부님과 이윤현신부님이 미사를 공동 집전하셨다.



▶ 호스피스의료비 지원 (2014년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이 여생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있는 임종을 맞이하도록 실질적인 후원을 하고자 그간에 본 협회 이사진들의 후원기금마련을 위한 노력과 회원님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부산성모병원의 2명, 부산메리놀병원의 1명, 여의도성모병원의 2명, 성바오로복지병원 1명, 전.진.상.복지의원 1명 총 7명의 환우에게 진료비 일부와 간병비 보조금을 후원해드렸다.